

화장·납골 확산 “3조시장 잡아라”

고성장 잠재력 불구 ‘걸음마 단계’ 전문생부족으로 소비자불만 높아

최근 일본 장례업계 관계자 20명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시장을 살피고 조사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서울 아산병원의 장례식장 등 전국의 관련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장례업계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이다. 국내는 아직 화장 납골 뿐 아니라 화장 장례연습 장례자동차 등 관련 서비스가 낙후돼 이들이 시장개척 차원에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장례업체인 스카이그라운드 한국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방한한 이 그룹의 윌터 김(66) 회장은 “한국의 장례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며 “경기를 타지 않는 업종이어서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최신식 전자동 ‘소형 화장로’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화장로는 도심의 병원 영안실에 설치할 수 있는 첨단 무공해 소각로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회장은 미국 내 화장 납골 정비 등

10개 장의용품 제조회사의 한국 아시아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장례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국내 장례시장이 현대화 추세를 결을 타면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관련 법규가 바뀌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권장하자 선진국형 장례업종이 꿈틀거리고 있다. “돈되는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일부에서는 난립과 열 앙상까지 보인다.

◆ 대학에선 인가학과로 자리잡아 = 경부고속도로 수원인터체인지 인근에 있는 화장장인 연화장. 수월시가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곳은 흡사 공원과 같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장시설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유재혁씨는 “과거 무연고자 전염병 사망자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도심지 추모공원으로 탈바꿈했다”며 “실제로 밤이면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친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화장장 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등 이른바 장례산업이 혐오 업종 이미지를 탈피해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선 전국에 있는 장례관련 1천여 업체가 현대화 바람을 타고 있다.

최신 영안실 시설을 갖춘 병원 장례식장이 4백50여개로 늘어났으며, 전문 장례식장만도 50여개에 이른다. 화장장도 전국에 45개에 달하며,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도심지에 후리를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매장 묘도 가족납골당 형식으로 새롭게 꾸미는 추세다. 납골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사망자수를 보면 약25만명이다. 또 장례비용(묘지값 포함)을 따지면 한 건당 평균 1천2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내 장례산업은 연간 3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장례 상담과 묘지알선, 영구차 대여 등을 인터넷으로 토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업체도 현재 80개가 성업 중이다.

늘어나라 유너발엔닷컴 국제장의사 등 장례 관련 전자상거래업체가 성업중이다. 최근에는 TV홈쇼핑업체들도 수의 납골함을 판매하는 특별행사를 자주 개최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장례 상품을 친근하게 접하고 있다.

이들 모두 고려하면 국내 장례산업은 2002년 이후 연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례산업이 이같이 급부상하면서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가 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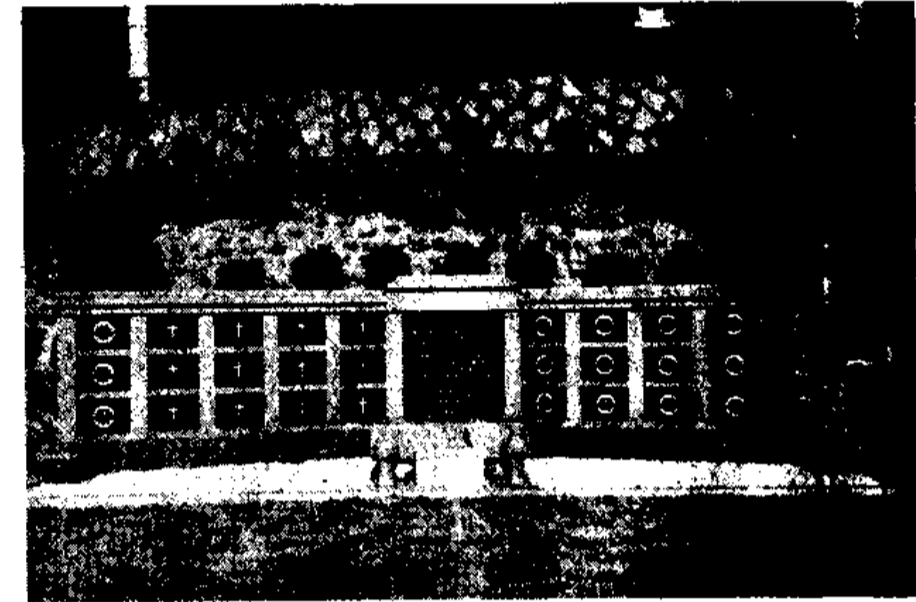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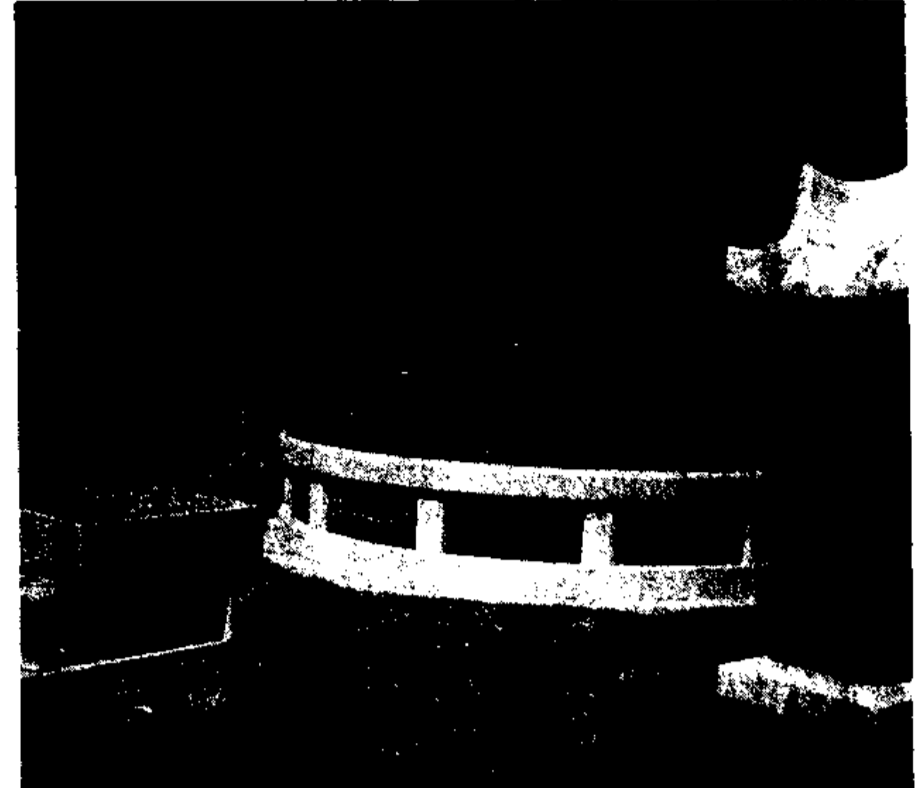
서울보건대는 올해 장례지도과를 2년제에서 3년제로 바꿨다. 장례 상담 등을 제대로 배우려면 2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수도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전문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1999년 학과를 만든 뒤 3회에 걸쳐 졸업생 1백여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종합병원 영안실 등 관련 업계에 거의 백% 취업했다.

대전보건대도 올해 처음으로 장례지도과를 설립, 현재 80명씩 학생을 뽑고 있다. 이밖에 동국대는 장례문화 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다.

이렇듯 서울보건대 교수는 “장례업이 혐오 천인 업종이라는 뿌리 깊은 이미지가 바뀌면서 산업으로 정착되자 학생들도 새로운 개척분야로 인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 문제점도 여전히 많아 = 장례업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된다. 그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됐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다 보니 수의 관 화장 장례음식 납골당 등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비가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세계의 장묘문화

오전 10시 ‘개관’시간이 되면 카메라를 둘러싼 젊은이들이 팽팡뿔을 받아 들고 입장한다. 연신 셔터를 눌러대다 때로는 열심히 메모를 하기도 한다. 구내공원에는 소풍을 온 어린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다닌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지만 사실은 화장터다. 1996년 문을 연 일본 오이타(大分)현 나카쓰시의 ‘비림의 언덕 화장터’는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명소로 자리잡은 곳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터 특유의

연기와 악취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재연소 버너가 달린 최신 화장로를 설치, 시신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정화해 배기구로 내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화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울퉁불퉁한 굴뚝이 없다.

화장로 하나에 3천만엔(약3억원)이나 하지만 과감하게 투자했다는 것이 시장 측 설명이다. 전체 공사비 15억5천7백만엔 중 화장로를 비롯한 설비가 4억8백만엔으로 28%가 넘는다. 처리시설도 여유있게 해놓았다. 나카

일본 나카쓰시 화장터 겸 공원 ‘비림의 언덕’

쓰시는 인구 7만3천명 중 사망자수를 연간 1%인 7백30명으로 잡고 있다. 화장터를 3백65일 분기동하면 하루 2건 꼴이다. 그러나 화장이 몰릴때를 대비해 화장터는 5개를 설치했다. 유족들은 시간에 쫓기거나 다른 유족들과 뒤엉키지 않고 넉넉하게 화장을 치를 수 있다.

화장터 부지 내에는 ‘비림의 언덕’이라는 공원을 조성했다. 1만평의 부지 중 3분의2가 공원이다. 울타리가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공원 내 화장실이나 잔디밭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중 발견된 고분도 그대로 보존해뒀다. 나카쓰시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주 소풍을 오기도 한다. 어린이들의 소풍장소로 이용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화장터다.

설계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인 마키 후미히코(74)에게 의뢰했다. 게이오대의 참관자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유소년기를 나카쓰에서 보낸

것을 기념해 게이오대 캠퍼스를 설계한 마키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의 대표작이 된 ‘비림의 언덕 화장터’는 일본 건축계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를 감상하러 미술관 가는 기분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매일 1백여명에 달한다.

화장률이 99.5%에 달하는 일본에서도 화장터는 역시 혐오시설이다. 화장터를 세우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이곳만큼은 바로 옆에 민가가 붙어 있는데도 주민들의 불만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역의 자랑거리로 자리잡았다. 그러다보니 화장터 건립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노바라 스케치카 관리소장은 “이 정도 시설이면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미래의 화장터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민 80% 이상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중심으로 개선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전국 최고인 80.1%를 기록한 부산시의 화장률이 향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민80%이상 화장·납골 찬성 화장장 납골시설 유치는 반대

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강 위원’이 최근 부산시민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화장 및 납골중심으로 장묘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해 ‘비림지하다’는 의견이 83.8%(202명)로 ‘비림지하지 않다’(6.2%)거나 ‘잘 모른다’(10.0%)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75.3%가 시역내 화장 및 납골시설의 증설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자체에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45.0%)인정이 ‘수용’(32.9%) 의견 보다 높아 ‘우리지역내 혐오시설은 안된다’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났다.

聯興石材—美化您的新天地!

Lianxing Stone—To Beautify Your New Environment

聯興石材有限公司
LIANXING STONE CARBON & MATERIALS CO., LTD.
Fujian Province, China

工廠地址(Headquarters): 中國福建省晉江市永和鎮內厝工業區
Nelicuo Industrial Park, Yonghe Town, Jinjiang City, Fujian Province.
國際傳真(FAX): 0086-595-8082429 8089033
工廠電話(TEL): 0086-595-8080222 8081033
手機(Mobile): 0086-13905055073
電子信箱(E-mail): lxstone@pub2.qz.jl.cn
網址(Http): //www.lxstone.com

廣州辦事處(Guangzhou Office)
地址(ADD): 廣州市工業大道南 821 號金華花園 12#18 樓 D 座
Flat D/Floor 18, Building Jingbi Garden No.821 South Industrial Avenue, Guangzhou
電話(TEL): 020-84062662
手機(Mobile): 139-28433199
廣州門市部: 廣州市天河東駿石村城 B 區 6-4 號
電話(TEL): 020-82322820

*(사) 한국석재협회 특별회원사 업체

미래 관광자원의 주축이 될 새로운 도시환경문화를 창조하는

(주)장등석재

석재전문업체 주문제작

- 화강석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GRANITE BOUNDARY BLOCK)
- 화강석 야광경계석(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
- 화강석 도로분리대, 가로수분경계 (GRANITE CENTER SEPARATION, STREET TREES STONE, TREESPROTECTION HOLE COVER)
- 계단석, 두껍석, 건축석 (GRANITE STAIRS STONE, ORNAMENTAL CAP STONEARCHITECTURAL INTERIOR GRANITE)
- 교명주, 물리드, 표지석 등
- 석재공예품 및 가공일절(거문예석)
- 납골 및 장묘 주문형 제작
- 엠보스톤, 미끄럼방지석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570-890
전북 익산시 당산면 구명리 979-51
http://www.hdstone.co.kr
TEL (063)858-8484-5 FAX (063)858-8473

(주)장등석재

아광도로 경계석 시공현장